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easibility of On-line International Teaching Practicum of Korean Education Universities¹⁾²⁾

Kim, Youn Ock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Yun, Soyoung³⁾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centre for Global Teacher Education, Full-time Researcher)

Sol, Yang Hwan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 ABSTRACT >

Due to the influence of the Corona Virus (COVID-19) that has hit the whole world, new attempts at using various kinds of video media have been implemented. By reflecting the current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online international teaching practicum.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we looked at the contents of the student-teachers' experience in thei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Teaching Practicum (ITP), and based on this, we explored the feasibility of online ITP.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Online international teaching practicum is unlikely to be realistic because it is difficult to provide 'practical experience' to the student-teachers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ir multicultural competence, positionality and attitude in the online international teaching practicum scene, and positive reflection on their ITP experience.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this becoming a reality is rather low due to the limitations on what needs to be realistic for operation. However, through a type of educational volunteering servic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ICEF, it has been suggested that pre-service teachers can expect to strengthen their language skills, enhance their professionalism, and boost their personal growth through a new type of online international teaching practicum.

Key Words : International Teaching Practicum(ITP), online international teaching practicum, teacher education, multicultural competence, Covid-19

- 1)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under Grant (NRF-2017S1A5B8059786).
- 2) The partial contents have been extracted and modified from 2020 GNUE The center for global teacher education domestic conference, 'Seeking feasibility of online international teaching practicum.'
- 3) Corresponding Author: Yun, Soyoung, Full-time researcher,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Center for Global Teacher Education, Woongjin-ro 27, Gongju-Si, Chungnam, Korea, 32553 / E-mail: soyoungyun0725@gmail.com

국내 교육대학교들의 온라인 국제교육실습 실행가능성 탐색¹⁾²⁾

김윤옥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윤소영³⁾ (공주교육대학교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전임연구원)
설양환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요약 >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다양한 화상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들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국제교육실습의 실행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국제교육실습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의 실습록을 통해 드러난 현장 국제교육실습참여의 경험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의 실행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은 ‘실제적 경험’에 대한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의 다문화 역량 강화, 실습상황에서의 위치 및 자세, 학생들이 체감하는 긍정적 반응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운영을 위해 현실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있기에 현실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UNICEF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을 통한 예비교사들의 다문화 역량 강화, 언어 역량 강화, 교사 전문성 신장, 개인적 성장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주요어 : 국제교육실습, 온라인 국제교육실습, 교사교육, 다문화 역량, 코로나19(COVID-19)

-
- 1)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8059786).
 - 2) 이 논문은 2020년 공주교육대학교 글로벌인재교육센터 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의 실행가능성 탐색’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였음.
 - 3) 교신저자: 윤소영, 전임연구원, (32553) 충남 공주시 웅진로 27, 공주교육대학교 글로벌인재교육센터 / E-mail: soyoungyun0725@gmail.com
논문투고일자: 2020. 5. 15 / 심사일자: 2020. 5. 19 / 게재확정일자: 2020. 5. 28

I. 서론

교육실습은 “예비교사들이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로 실천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문제를 이해하며 대안을 탐색(Lee, Jeong, & Sol, 2018, p. 298; Na et al., 2012)” 하는 과정이다. 국내교육실습과 국제교육실습은 궁극적인 운영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Sol, 2011). 국내교육실습과 국제교육실습 모두 현장경험을 통해 현장의 실재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교사로서의 개인적, 전문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은 같지만, 국제교육실습의 초점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는 현장에서 적응하고 상호작용 및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중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서 다문화 역량, 교사역량, 의사소통 역량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교육실습은 예비교사들이 세계 속의 다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다(Kim & Yun, 2019). “다문화주의는 특수성을 강조하고, 세계화는 보편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이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는 하지만, 소수 문화의 다양성과 함께 최소한의 공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에 있어 이 두 개념은 화해(Cole, 1984, cited in Sung, 2010, p. 29)” 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시민의식(Kim, 2015) 함양으로 연계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국제교육실습의 과정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자신들과 문화, 언어, 교육체계가 다른 나라에서 국제적 경험을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미래 교실에서의) 자신의 학생들에게 도움(Lee et al., 2018, p. 299)” 이 될 수 있는 경험을 한다. 국제교육실습의 운영 목적은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던 다문화, 다양한 가치, 다양한 교육과정 등에 대한 노출과 경험을 통하여 더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가치관 및 태도의 변화를 함양하여 글로벌 리더로서의 기초를 닦는 “learning by doing(Foster & Rosenzweig, 1995, p. 1176)” 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적 경험을 통한 통찰과 배움을 한국의 교실에 적절하게 해석 및 적용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과정으로, 다문화환경에 깊숙이 노출된 경험을 통해 자각한 새로운 세계(global awareness)와 문화(cultural awareness)를 통해 스스로 가진 “고정관념, 편견, 차별(Freire, 1970, cited in Lee et al., 2018, p. 299)” 등의 가치와 신념체계에 대한 “비판의식(critical consciousness)(Freire, 1970, cited in Lee et al., 2018, p. 299)” 함양을 위한 것이다.

국제교육실습은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국내의 몇몇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교의 상황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의 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GTU)사업은 일부 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선정하여 운영(Kwon & Kim, 2015)” 하고 있고, 한국의 한 사범대도

연변으로의 국제교육실습을 운영하였다(Son, Park, & Lee, 2016). 실제 국내 교육대학교에 비해 사범대는 국제화에 제한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는 “대표적 교원양성기관으로 중등교원 양성의 목적성과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라는 특유의 정체성을 다져왔으며, 일제강점기 사범학교의 전신이라는 배경으로 인해 국가주의적, 폐쇄적 교육의 속성(Kwak, 2004, cited in Kwon, 2014, p. 505)”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한 교육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국제교육실습 참가 예비교사들의 경험과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된 교대생들의 경험의 내용에 집중하고자 한다.

2019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서 현재 한국은 온라인 교육실습을 실시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보여줄 수업 영상을 녹화하는 모습을 참관하고 수업과 관련된 온라인 학습 자료를 만드는 것을 도우면 교육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Lee, 2020, April 12)” 는 취지이며, “교육실습생이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에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학생지도도 돕는 것도 교육실습으로 인정될 예정(Lee, 2020, April 12)” 이다. “온라인 활동이긴 하지만 ‘교육활동을 경험한다’ 는 교육실습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이를 인정하며, 구체적인 실습 방식은 각 대학과 교육실습 협력학교인 일선 학교의 협의 하에 정하게 된다(Lee, 2020, April 12).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출현과 그에 따른 이동성의 제한, 사회적 모임의 제한, 휴교 등의 상황은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온라인수업, 온라인 회의, 온라인 교육 실습 등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정부는 “한국형 원격교육 발전 방안” 을 만들기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연구 개발에 착수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Jeon & Mun, 2020, April 23).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 개학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우리는 이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 미래교육으로 도약하는 교육혁신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Jeon & Mun, 2020, April 23)” 고 주장하였다. 물론, 온라인상으로 연결된 모임 역시 실천공동체이고(Canagarajah, 2003), 소통이 가능하지만,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 그리고 다문화 역량 함양을 위한 국제교육실습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온라인 국제교육실습 운영의 실현 가능성은 연구된 바가 없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반복적으로, 장기간 발생할 수 있을 오늘날과 같은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한 현장에서의 교육실습실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공간을 통한 국제교육실습의 실행이 가능할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내 예비교원들을 위한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은 실행 가능한가?

II. 연구의 배경: COVID-19와 이동성의 제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는 각국의 경제 및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0년 4월 “19일 0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18만 8936명, 이로 인해 숨진 사람은 15만 2515명이고, 하루 새 10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추가 발생할 정도로 그 세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Newsis, 2020, April 20)”. 여러 기사에서 이야기 하듯이 코로나19는 계속 변이될 수 있고, 또 다른 종류의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 변종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수 있기에(Jeong, 2020, May 11), 향후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반복될 가능성도 간과 할 수 없다.

바이러스의 여파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환경의 범위가 변화하고 있고, 전염성이 강한 특징 때문에 이동성(mobility)의 제한(Blommaert, 2020, March 6)을 골자로 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작은 소모임부터 국제적 스포츠 경기, 해외로의 여행 등(Blommaert, 2020, March 6)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서의 이동성의 제한은 현 상황에서 필수적인 결정이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각국의 정부는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제한되고 금지되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각국의 학교들도 현장수업을 중지하였고, 휴교에 따른 대안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표 1> 세계 여러 국가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휴교 조치 내용

#	국가	휴교 여부	온라인 교육여부	기타
1	미국	△ (상황에 따라)	△ (휴교시)	- 소규모/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경우 휴교
2	캐나다	●	●	- 학기 조기 종강, 이에 따른 평가 기준을 변경하여 재정비
3	영국	●	언급없음	- 전국 유아교육기관 및 초중등학교 무기한 폐쇄 - 2020년 5~6월에 예정된 대입시험(A레벨, AS레벨), 중등교육자격시험(GCSEs)전격 취소
4	독일	●	언급없음	- 보육시설, 학교, 대학 등 모든 교육기관은 휴교 및 휴업(3월 13일~4월 19일)시행
5	프랑스	●	●	- 유치원~고등교육기관 무기한 폐쇄 - 원격수업 제공이 원칙 -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강력한 이동 제한 실시, 모든 업무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 대학지원기간 중인 고3학생의 경우 대입업무를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

6	핀란드	●	언급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13일까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모두 휴교예정이고 대면수업 중단 - 사회기능 필수적 직군 종사자 자녀와 특별지원 대상 학생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면수업 가능 - 대학입학능력시험을 1주 앞당겨 시행
7	일본	●	언급없음	
8	중국	●	△ (개학연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학이 연기될 경우 온라인 학습을 위한 교과 편성 - 학부모는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학생을 관리하고, 학교에서 준비한 온라인 강의와 숙제를 지도 - 개학이 연기될 경우 온라인 학습 실시
9	싱가포르	언급없음	언급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활동프로그램 중단
10	호주	△(상황에 따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의 셋다운 발표(1차, 2차)이후, 학교도 휴교 상황을 대비하여 온라인 교육 등을 준비 - 호주 전역의 3,5,7,9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초수학능력평가(NAPLAN)’ 및 각종 학교 행사/대회가 취소 - 우리의 수능과 같은 뉴사우스웨일즈(NSW)주의 ‘고등학교 수료 시험(High School Certificate)’ 은 예정대로 진행
11	덴마크	●	언급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 시설, 학교, 기관 등을 폐쇄된 상태로 유지
12	베트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동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침 -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 - 10학년이 치르는 고등학교 입학시험(6월에서 미정), - 12학년이 치르는 대입시험(7월에서 8월로) 연기

출처: Education Policy Network(2020, May 8)

한국정부는 역시 초중고 및 대학교의 현장수업 대신 온라인 개학을 통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20년 3월에는 대학들이, 2020년 4월 16일에서 20일엔 초등학교들이 온라인 개학을 통해 원격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사상 첫 온라인 교생실습을 허용한다(Lee, 2020, April 12). 이후 Zoom이나 팀즈(Microsoft Teams)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원격강의, 웨비나(Webinar) 모임 등이 활발해지고 있다.

Ⅲ. 이론적 배경

1. 국제교육실습의 목적과 효과

Cushner & Brennan(2007)에 따르면, 문화가 다른 외국에서의 교육실습은 1) 균형잡힌 의식의 개발, 2) 타인에 대한 민족관련성(ethno-relative orientation) 함양, 3) 타문화권의 사람

들과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역량 강화, 4) 타문화권 사람들과 효과적인 협업이 가능한 대인 관계 개발, 5) 국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문화적 충격의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Azizah(2016) 역시 국제교육실습을 통한 독립성, 다문화에 대한 이해확장, 상호작용 기술 능력발달, 교수능력 발달 등의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국제교육실습 운영목적과 참여를 통한 효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교육실습은 다른 문화권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 역량 등의 다문화역량을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제교육실습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다문화적 역량이 강화된다(Kim, Yun, Sol, & Seo, 2019). 다문화적 역량 함양은 다양성을 수용하고 다름의 인정을 뛰어넘는 것으로(Lee, 2016),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다. 다문화적 역량 중 지식의 강화측면을 연구한 Kim et al.(2019)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교육실습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은 현장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실제적인 문화와 언어의 다름에 대한 지식 역량의 강화를 경험했다.

둘째, 국제교육실습은 다른 문화권의 교실상황으로의 실제적 참여를 통해 교사로서의 개인적, 전문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Fitzsimmons & McKenzie(2006)는 국제교육실습 참여를 통해 예비교사들은 다른 문화권에 대한 열린 자세와 수용의 자세는 물론, 현장에서의 상호작용과 교실관찰을 통해 전문성이 신장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교육실습의 효과로서 ‘개인적 성장’은 물론 다양한 측면의 ‘교사 전문성 신장’은 여러 선행연구들(Ahmad, Ishak, Samsudin, Meylani, & Said, 2019)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국제교육실습을 통해 예비교사들의 수업 역량이 향상되었는데, 예비교사들의 교육철학이 변화했고, 학생들의 차이에 따른 융통성 있는 교수전략을 내세울 수 있게 되었으며, 학생 개개인의 다름을 더 세밀히 보고 격려할 수 있게 되었다(Mahon & Cushner, 2002; Slapac & Navarro, 2013). Ozek(2009)의 연구에서도 국제실습경험을 통한 예비교사들의 교육철학의 변화와 다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얻음으로 개인적, 전문적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보고된다.

셋째, 국제교육실습은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 경험을 통해 언어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등의 개인적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목표 언어를 구사하는 국가에서의 체류 경험은 실제 의사소통 능력의 증가에도 도움이 되었다(Sol, 2011). 낯설고 두렵기도 한 상황에 대한 노출 경험은 국제교육실습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예비교사가 노출되는 환경으로(Doppen & An, 2014), 이미 자신이 알고 있던 익숙한 언어와 문화를 벗어나 다른 언어와 문화권으로 충분히 빠져 들어가는 ‘fully-immersed’ 경험이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다른 문화권에 대한 경험은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 사이를 경험하는 것이고(Brindley, Quinn, & Morton, 2009), 자연스럽게 자문화와 타문화

의 비교와 대조가 가능하도록 돕고, 이를 통한 다문화 환경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Sol, 2015), 교사들은 비교 문화적 경험과 비교문화적 경험의 의미를 정립할 수 있게 된다(Cushner, McClland, & Safford, 2000). Kim, Sol, & Woo(2011)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교육실습에서 한국예비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발음 정도의 어려움이었던 보고가 있었다. 이 또한 한국어가 아닌 다른 목표언어를 구사하는 국가의 학교 현장에 실제노출이 되면서 예비교사들이 겪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실제로 목표언어를 구사하는 국가에서의 수업경험이 더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경험과 함께 예비교사들의 자신감을 고취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도 있다(Kabilan, 2013; Sol, 2011). 국외의 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교육전문성은 물론 다문화 역량과 언어능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해외 체류 중 홈스테이 경험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Kim, 2019). 한국의 교육실습생의 실습 경험의 의미에 대한 Sol(2015)의 연구에서, 실습 교생들은 수업을 통해 겪는 어려움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 한국과는 다르게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미국의 수업시설과 인프라를 경험하며 한국의 수업시설과 비교 및 대조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한국학교에서 IT를 적극 활용한 수업방식에 대한 필요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미국교사들의 수업 운영방식은 개개인의 필요를 파악하며 학생 개인의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방식이었으며, 프로젝트성 수업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자유롭지만 질서가 유지되는 수업이었다. 교사의 통제가 느슨해지는 경우 교실이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모습은 한국의 교실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같은, 그리고 다른 한국의 교실과 외국의 교실 경험을 통해 한국 예비교사들은 관찰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미를 찾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국제교육실습의 목적은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고, 가르치고 알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탐하고, 새로운 언어와 지역의 공동체가 사용하는 말로 소통하며, 세계화의 문제를 스스로 체험하고 이를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Mahon & Espinetti, 2007, p. 13)” 이고, 이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다양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 환경으로서의 교실, 사회로의 실제적 참여를 통한 예비교원의 다문화적 역량, 국제적 시각의 확대, 교육철학의 변화, 교사전문성 발달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익하고 중요한 교사교육의 과정이다.

2. 예비교사들의 국제교육실습 참여 경험

예비교사들의 국제교육실습의 실제적 참여 경험을 통한 예비교사의 전문성 신장, 개인적 성장, 다문화적 역량의 강화, 자신감 증진에 대한 보고는 여러 연구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Ahmad et al., 2019; Azizah, 2016; Cruickshank & Westbrook, 2013; Kabilan, 2013; Kim, 2019; Kim et al., 2019; Maynes, Allison, & Julien-Schultz, 2012; Myers, 1997; Ozek, 2009; Pence & Macgillivray, 2008; Sahin, 2008; Sol, 2011; Sol, 2015; Thomas, 2006; Willard-Holt, 2001).

Kim, Yun, & Sol(2021, June, in progress)의 연구에서 한 예비교사는 국제교육실습을 ‘물꼬를 트는 경험’이라고 칭했는데, 이는 이전 대학과정을 통해 배운 경험과 국내교육실습의 경험, 그리고 국제교육실습에서의 경험, 다문화 교실, 사회로의 충분한 노출 경험, 이 다시 한국의 교실로 이어지는 흐름을 국제교육실습을 통해 인식하고 그 가치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Walters, Garii, & Walters(2009)가 강조한 이전의 학습과 현재 국제교육실습의 경험을 통합하는 과정의 중요성이 예비교사들의 실제적 참여를 통해 스스로 얻은 ‘깨달음’으로 드러났음을 보여준다. 실습보고서는 국제교육실습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이 스스로의 실습의 과정을 기술하고 자신의 실습참여의 경험을 자기반성적(self-reflective)으로 기술한 보고서로서, 평가항목으로서 ‘실습내용에 대한 반성’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예비교사들의 자기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Kim et al., 2019).

국제교육실습 참여 경험의 의미는 여러 연구에서 다양하게 드러난다. 국내 교육대학교의 국제교육실습참여 예비교사들의 실습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한 Sol(2015), 그리고 Kim(2019)의 연구에서 실제적 참여를 통한 국제교육실습의 효과는 프로그램 참여한 예비교사들의 실습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표 2> Sol(2015)의 연구: 초등예비교사들의 미국교육실습 경험

구분	내 용
동기	<p>영어, 염려되지만 배우고 사용해보고 싶다.</p> <p>“현지에 가서 현지에서 쓰이는 현지회화를 배우고 싶다(김OO).”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쉬운 교실 영어를 배우는 것이다(조OO).”</p>
배운 점	<p>자유로운 좌석 배치 및 시간표 운용, 그리고 교과서의 사용을 통해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빛났다.</p> <p>“여느 집처럼 소파, 쿠션, 액자 등 편안함이 묻어나는 물건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바라고 바라는 담임 교사, 교실! (하OO)” “수업 시간에 따로 사용하는 교과서가 없고, 교사가 직접 만든 교재나 그 날 배울 내용에 사용하기 적합한 학습지, Smart board(전자칠판용 터치 패드)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게임이나 활동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이OO).” “한국은 학기 전에 시간표가 짜여서 나오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하루의 수업을 그날그날 상황에 맞게 담임선생님이 구성하여 아침에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김OO).”</p> <p>학생들을 보살피는 방식</p> <p>“또한, 놀라웠던 점은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들이 많이 제공된다는 것 이었다...(신OO).” “다양한 선생님들! reading recovery, 부진아 혹은 우등생 지도를 위한 resource, 아이들의 단계별 학업 신장을 돕는 interventionist, 장애아를 돕는 special education severe aide 등 다양한 직책을 가진 선생님들이 함께 해서 보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게 인상깊었어요...(하OO).”</p> <p>자유롭지만 엄격한 미국 학교의 문화(함께 규칙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꾸준히, 그리고 엄격히 노력한다)</p> <p>“개학 첫 날 느낀 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규칙’이었습니다. 교실 내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규칙이 많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비슷한 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의 규칙은 좀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곳은 매 학기가 시작되는 날에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한 학기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규칙들(norms)을 정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모두의 동의하에 만들어진 이 규칙들을 지켜야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게끔 합니다(이OO).”</p>

읽기의 강조

“수학시간에도 수학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책을 읽으면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책이 있어 수학시간에도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한다(김OO).”
 “점심을 먹은 후에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시는 시간이 있다. 시간은 이십 분 정도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진다(김OO).”
 “모든 학교가 reading을 중시하므로 교사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것(reading to)에서 시작해서 아이들이 스스로(reading by) 책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조OO).”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아쉬움도 있지만,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다.

“솔직히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하자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 ...(중략)... 영어를 잘하면 학교에도 아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교육실습에 다녀와서 영어를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신OO).”
 “영어를 더 배울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배웠다라는 점이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학교 환경과 달리 미국의 학교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배워가서 직접 내가 선생님이 되었을 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에 좋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영어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조금 어려웠다(김OO).”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무래도 영어였다. ...(중략)... 수업을 하는 데도 같은 내용으로 한국에서 수업한다면 자료를 찾고 정리하면 끝날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어떤 질문에는 어떤 대답을 할지 미리 영어로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도 힘들었다. 미국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언어장벽 때문에 내 마음을 모두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기도 했다(김OO).”

회
고

다양한 시설이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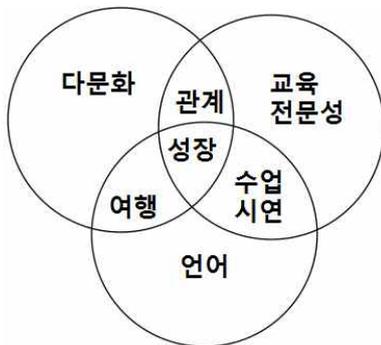
“하지만 이곳은 대체적으로 넓적 넓직한 편이어서 그것이 가능했고, 문도 운동장으로 나가는 문과, 건물 안에 있는 문 이렇게 두 방향으로 나 있어서 좋았다(강OO).”
 “아이들이 복도를 잘 다니지 않고, 바로 밖으로 통하는 문으로 등, 하교를 했던 점이 특이했다(김OO).”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국제교육실습에 참여하면서 미국의 교육환경과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을 비교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크게 보면 교육환경에서부터 작게는 교실운영, 수업시간 활동까지 우리나라가 더 나은 점, 우리나라, 학교, 수업시간에 적용해도 좋을 점 등을 많이 생각할 수 있었다. 비교해 보고 생각해 봄으로써 시각이 조금은 넓어졌다는 점이 좋은 교사가 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다(신OO).”

또한, 20편 이상의 국제교육실습 관련 연구에서 나타나는 국제교육실습의 의의와 중요성을 분석한 Kim(2019)의 연구에서는 5주 동안의 국제교육실습 참여를 마치고 돌아온 예비교사들의 실습보고서에서 드러난 경험을 분석하였고, 연구의 결과로 추출된 국제교육실습의 의의와 중요성은 교육전문성, 다문화, 글로벌 관계, 성장, 언어, 여행, 공헌의 키워드로 드러났다([그림 1]참조).

Kim(2019)은 실습보고서 분석을 통해 드러난 키워드들을 Barkhuizen & Feryok(2006)의 국제교육실습 프로그램의 운영 요소와 비교하였다. Barkhuizen & Feryok(2006)이 제시한 국제교육실습 프로그램의 체계 내 세 가지 요소는 “참가자의 기대(expectations)와 관련되어 있는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경험(experiences)은 물론 반사적인 언급과 경험 및 지식의 토로 등의 체계(Barkhuizen & Feryok, 2006 cited in Kim, 2019, p 38)” 이다. 이를 기반으로 분석한 G교육대학교의 국제교육실습생들의 실습보고서에서 드러난 경험을 Kim(2019)은 아래와 같이 벤다이어그램화 했다.



국제교육실습 프로그램 경험의 요소

- 교육전문성: 아동자율성(자기-주도성, 학습부진과 주정부의 정책), 교육과정, 교사 자율성, 교장 지도성, 교직원문화, 배울 점
- 다문화: 타문화의 특성, 타문화의 이해와 소통, 자문화와의 차이
- 언어: 영어능력이 신장
- 글로벌 관계: 가족이 아닌 글로벌 관계에서 가족애와 같은 관계 형성
- 성장: 개인적 발전, 프로그램의 단점에 대한 반성적 토로를 통한 프로그램의 성장 등.

[그림 1] G교육대학교 국제교육실습생들의 실습보고서에 나타난 국제교육실습

*출처: Kim(2019), p. 38.

국제교육실습 참여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얻은 교훈의 소주제 중 ‘교육’은 연구대상자의 95%에 달하며, “국제교육실습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분류해보면 아동 자율성, 교육과정, 교사 자율성, 교장의 지도성, 교직원문화, 기타 배울 점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Kim, 2019, p. 34)”.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은 현장으로 풍덩 빠져드는 경험을 통해 성취된 것으로 프로그램 참여 후 참여자들이 제출한 실습보고서를 통해 생생하게 ‘토로’로 드러났다(Kim, 2019).

3. 온라인 교육실습

온라인을 통한 교육실습은 그 사례가 아직까지는 다양하지 않다. 예비교사교육을 위한 온라인강좌에서의 영어수업시연의 구현을 연구한 Kim & Park(2011)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의 교육실습의 필요성을 학생들도 인식하였고 교육실습 구현에 대한 반응 역시 긍정적이었다. 실습의 유익함에 대해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고, 자기 모니터링이 가능했다는 응답을 보였다. 동시에 “실습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녹화의 어려움, 교수방법 노하우 부족, 가이드라인 또는 교수실습 예시의 필요(Kim & Park, 2011, p. 116)”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내용적인 부분의 보완을 위해 실습 내용의 구체적 선정, 모범 실습 예시의 필요, 학생 수준에 맞는 표현의 요약 제시, 동료 및 교수님과과의 실제적 접촉의 필요, 상세한 자료와 구체적 틀을 제시요구 등이 언급되었다(Kim & Park, 2011).

IV.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국제교육실습 실행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국제교육실습의 실행가능성을 탐색해보기 위해 국제교육실습 관련 문헌들을 통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들에서 드러나는 예비교사들의 이야기를 한국의 한 교육대학교의 2018-2019 국제교육실습 참가학생들의 실습록에서 드러나는 이야기들과 비교하여 공통적인 내용들을 도출하였다. 이 내용들을 국제교육실습의 실습 전(사전교육), 본 실습, 실습 후(사후평가)의 흐름을 기본으로 하여 각 단계에서 보고된 예비교사들의 경험의 내용들로 정리하였다. 정리된 내용을 기본으로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의 가능성을 가능해 보고,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V. 연구결과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드러난 국제교육실습 참가 예비교사들의 경험의 내용과 요소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국제교육실습 참여자들의 경험의 내용과 온라인 실습의 가능성

교육 과정	장소	특징	예비교사들의 경험의 내용	온라인 국제교육 실습에서의 가능성	키워드
사전 교육			국내 소속 교육대학교의 사전오리엔테이션 참가	가능	
본 교육	도시	수행	외국어의 실제적 사용 경험	미약하나마 가능	교육 전문성, 다문화, 글로벌 관계, 성장, 언어, 여행, 공헌
		수행	대화의 맥락에 적절한 언어 및 제스처 구사	힘듦	
		수행	쇼핑	불가능	
		관찰	현지관광	가능	
		관찰	다양성의 경험 (인종, 언어, 문화 등)	미약하나마 가능	
	홈스테이	수행	대화를 통한 다양한 가치의 경험	미약하나마 가능	
		관찰	생활습관, 예절, 식습관, 가정 문화 등의 경험	미약하나마 가능	
	학교	관찰	‘역할’에 대한 인식개선 ex) 교장의 역할	미약하나마 가능	
		관찰	학교 건물의 생김새 (단층건물 -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달려나가기에 용이한 구조)	미약하나마 가능	
	교실	관찰	자유로운 좌석 배치 및 시간표 운용, 교과서의 사용	힘듦	
		관찰	학생들을 보살피는 방식	힘듦	
		관찰	자유롭지만 엄격한 미국 학교의 문화 (함께 규칙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꾸준히, 그리고 엄격히 노력한다)	미약하나마 가능	
		관찰	읽기의 강조	미약하나마 가능	
		관찰	원하는 자세로 책읽기	미약하나마 가능	
		관찰	학교 내의 다양한 시설	힘듦	
수행		수업시연	가능		
수행	멘토교사 보조업무	미약하지만 가능			
사후 평가	수행	국제교육실습 실습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능		
회고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미약하나마 가능		

현장에서의 경험은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 사이에 놓인 예비교사(Brindley et al., 2009)이 현장을 관찰하고 다름과 같음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예비교사로 하여금 교사전문성, 다문화에 대한 이해, 글로벌 관계, 성장, 언어, 여행, 공헌의 키워드 (Kim, 2019)로 드러날 수 있는 다양하고 생생한 경험이었다.

각 경험에 대한 내용들을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을 통해 경험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의 가능성

교육 과정	예비교사들의 경험의 내용	온라인 국제교육 실습에서의 가능성	어떻게?
사전 교육	국내 소속 교육대학교의 사전오리엔테이션 참가	가능	교육자료 온라인 시스템 탑재
본 교육	외국어의 실제적 사용 경험	미약하나마 가능	화상으로 외국어로 의사소통
	대화의 맥락에 적절한 언어 및 제스처 구사	힘듦	
	쇼핑	불가능	
	현지관광	가능	촬영된 영상을 통한 현지관광
	다양성의 경험 (인종, 언어, 문화 등)	미약하나마 가능	촬영된 영상 혹은 화상을 통한 소통으로 경험
	대화를 통한 다양한 가치의 경험	미약하나마 가능	화상으로 외국어로 의사 소통
	생활습관, 예절, 식습관, 가정문화등의 경험	미약하나마 가능	촬영된 영상 혹은 화상을 통한 소통으로 경험
	‘역할’ 에 대한 인식개선 ex) 교장의 역할	미약하나마 가능	촬영된 영상 혹은 화상을 통한 소통으로 경험
	학교 건물의 생김새 (단층건물 -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달려나가기에 용이한 구조)	미약하나마 가능	촬영된 영상으로 경험
	자유로운 좌석 배치 및 시간표 운용, 교과서의 사용	힘듦	
	학생들을 보살피는 방식	힘듦	
	자유롭지만 엄격한 미국 학교의 문화 (함께 규칙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꾸준히, 그리고 엄격히 노력한다)	미약하나마 가능	촬영된 영상 혹은 실시간 소통 앱 등으로 경험
	읽기의 강조 원하는 자세로 책읽기 학교 내의 다양한 시설	미약하나마 가능 미약하나마 가능 힘듦	
수업시연	가능	온라인상으로 수업 시연	
멘토교사 보조업무	미약하지만 가능	수업지도안 등의 계획/이메일을 통한 소통 등	
사후 평가	국제교육실습 실습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능	
회고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미약하나마 가능	

예비교사들의 경험에서 드러난 이야기들 중 가능하거나 미약하나마 가능한 것으로 가능해지는 경험의 내용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실행해 볼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생각해 보았을 때, <표 4>처럼 거의 동영상으로 촬영된 영상을 방영하여 관찰을 하거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Zoom과 같은 화상매체 등을 사용한 실시간 소통 및 수업시연 등을 통해서 실행해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교육대학교 예비교사들의 경험을 통해 살펴본 국제교육실습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러한 방안을 통한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의 실행이 가능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1. 국제교육실습은 실제 현장으로 충분히 들어가서 생생한 경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온라인을 통한 경험의 제공은 제한적 경험의 제공일 뿐,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한 생생함을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는 생활양식이기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는 서로 다른 상대방의 문화 현장에서 그들의 생활양식을 체험할 때 진정한 인식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이 이역만리에 있는 학교현장에서는 그냥 유튜브(Youtube) 방송을 보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현지 대학교와 실습학교들이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의 필요성을 느낄지 의문이며, 따라서 온라인 국제교육실습 콘텐츠 제작에 대한 반응이 미온적일 수 있다. 온라인국제교육실습 참가자들은 항공료와 숙박비 등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참가가 가능한 지원자 수가 매우 한정적일 것이다. 온라인국제교육실습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일정 부분 참가비로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따라서 참가비 인상이 예상된다.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되더라도, 한편으로는 유튜브(Youtube) 제작의 참여자에 불과한 위치가 될 수 있다. 또한, 영어가 유창한 학생들만이 참가할 수가 있어서 지원자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을 실시한다면, 현장국제교육실습을 통한 이러한 생생한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2. 국제교육실습으로 인한 실제 현장으로의 노출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교육실습은 인위적으로 제작된 실습보다 펼쳐진 실습의 참여로 생태학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어디를 얼마나 어떻게’ 볼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경험이 가능하다.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을 실시한다면, 현장국제교육실습에서의 학습 환경, 시점의 선택 등을 얼마나 흡사하게 구현해

널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한, 1인칭 주인공으로서 외국의 교육현장/문화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노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아주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다.

3. 국제교육실습은 두 개의 다른 국가의 대학교들의 강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Sahin, 2008).

국제교육실습은 두 대학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고, 온라인을 통한 경험의 제공이 쌍방향이어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위해서는, 현지 학교(구청)에 온라인국제교육실습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온라인 국제교육실습 콘텐츠 제작 등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을 실현시키려면 면대면에서 유용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채스처의 사용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에, 주어진 프레임 안에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영어 공인인증 소지 학생 및 영어 면접 통과자 등으로 온라인 국제교육실습 지원자의 자격을 정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 또한, 여러 콘텐츠 제작 및 현지 학교 교사 수고비 등의 프로그램진행 부대비용으로 인한 참가비 인상이 예상되고, 양국 간의 시차문제에 대한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을 실시한다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국의 대학들이 어떤 식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서로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VI. 논의: 온라인 국제교육실습 운영의 가능성 재고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제교육실습 참여 학생들의 실습록에서 드러난 국제교육실습의 효과는 공통적으로 다문화, 교육전문성, 언어역량, 글로벌 관계, 성장의 다섯 가지 항목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국제교육실습을 운영했을 때, 이러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성취가 가능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을 통해 다문화 지식 역량 및 태도역량 강화(Kim et al., 2019)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실습참여자들의 응답에서 드러나는 국제교육실습의 효과 중의 하나는 예비교사들의 ‘다문화 역량 강화’이다. 다문화 역량의 경우 ‘실제적인 현장 경험’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온라인상으로 진행하는 데는 간접적 경험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교육실습 초인지 전문성은 대학에서 배우고 터득한 이론을 현장실습에서 어떻게 접목하고, 어떻게 실제에 맞게 수정하며, 어

떻게 전문성을 연마할 것인가의 교육실습에 대한 초인지적 지식, 초인지적 기술, 모니터링, 초인지적 경험, 자신 및 수업관리 등의 초인지 습득 및 연마를 의미(Kim, 2018, p. 3)” 하며, 국제교육실습 경험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이러한 초인지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다(Kim, 2018).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토착문화를 경험하면서 생기는 의문들과 고민들, 놀라움 등의 여러 가지 감정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Hart, Whatman, McLaughlin, & Sharma-Brymer(2012)의 연구결과는 실제적인 현장경험과 그로 인한 맥락의 이해와 지식의 재구성(초인지)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지식의 재구성은 국제교육실습을 통해 현지의 교육방법, 교육과정의 문화를 접하고, 본국의 교육방법/교육과정의 문화와 비교해 보는 경험을 하고 다문화환경에서 어떻게 가르칠지를 고민해 보면서 본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에 새로운 지식이 더해지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온라인으로 국제교육실습을 진행할 경우, 영상을 통한 타국의 교육방법, 교육과정 문화의 간접체험이라는 한계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간접 경험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지구촌 이모저모를 보는 것과 매우 흡사하며, 그러한 배움만으로 예비교사들의 인식, 태도, 역량 등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국제교육실습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장려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예비교사가 어떤 자세로 실습에 임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다. 예상치 못한, 혹은 기대하지 않은 관찰의 경험은 현장의 실제적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Yun, 2016)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장을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한국학교와 미국학교, 한국문화와 미국문화를 탐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어디를 얼마나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가진, 그리고 시선에 대한 자율성을 가진 참여자로서 자리매김(positioning)하게 된다. 하지만,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을 실시한다면, 정해진 앵글 속에 담긴, 이미 가공되고 선정된 부분만이 보여지는 관찰을 하게 된다. 즉,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닌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실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생태학적 환경(Creese & Blackledge, 2011)이 아닌 인공적인 환경의 국제교육실습이라는 한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예비교사들의 현장 경험을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프레임 속에 가둬으로서 획일적인 정보의 제공으로 끝나게 될 소지가 높다. 또한, 예비교사들이 실제적 참여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닌 주변적 참여로 주변인의 위치에서 학습을 관찰(Wenger, 1998)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소지가 높기에 현재 예비교사들의 국제교육실습을 통한 생생한 경험에 대한 토로는 온라인 국제교육실습 진행으로 이전만큼의 성취에 대한 토로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은, 셋째로,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인가이다. 만약 학생들이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참여를 통한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면 프로그램의 참여의 필요는 점차

낮아질 것이고,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과 존속 여부도 불분명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은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여부이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실제로 해외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으로 국제교육실습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갖을지 의문이다. Sahin(2008)은 국제교육실습은 두 개의 다른 국가의 대학교들의 강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국제교육실습은 두 대학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방향의 제공’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을 운영하면, 홈스테이 비와 비행기 값은 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국제교육실습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가늠하기 힘든 지출을 온라인 국제교육실습 지원자들이 호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국제교육실습 프로그램’이 필수 교육과정이지 아닌 ‘선택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로 가서 새로운 경험을 꿈꾸는 젊은 예비교사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많은 이유로 인하여 국제교육실습의 효과가 담보되기 어려우며, 학생들의 온라인 국제교육실습 참여의 의지가 저조할 경우 비효율적인 지출을 감행하여 실패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대학교들과 영어권 국가들의 대학교들의 협약으로 진행되어온 기존의 형태를 유지한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의 성공가능성은 프로그램 제작의 전 과정에 필요한 금전적 지출, 상대 대학교들의 온라인 국제교육실습 자료 제작과 진행에의 필요성의 여부, 그리고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희박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들을 재고하였을 때,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에서 기대할 수 있을 효과는 현장에서의 실제적 참여로써 이루어지는 국제교육실습의 효과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제교육실습은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제공을 위해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비교사들의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위해 이상적이다.

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의 실행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교육실습참가 예비교사들의 실습보고서에서 드러나는 경험(Sol, 2014)의 내용들을 살펴본다 온라인 상에서의 실행이 가능할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탐색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교육실습이 온라인을 통한 국제교육실습으로 운영 가능할지 그 가능성 여부를 탐색하였다. 연구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실습보고서에는 실제 현장 참여를 통해 배운 다양한 다름에 대한 경험은 권위적이지 않은 학교문화, 한국과 다른 교실의 구성, 운영 방식,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 반

복적인 관찰을 통한 깨달음 등 여러 가지 실제 현장 참여를 통한 국제교육실습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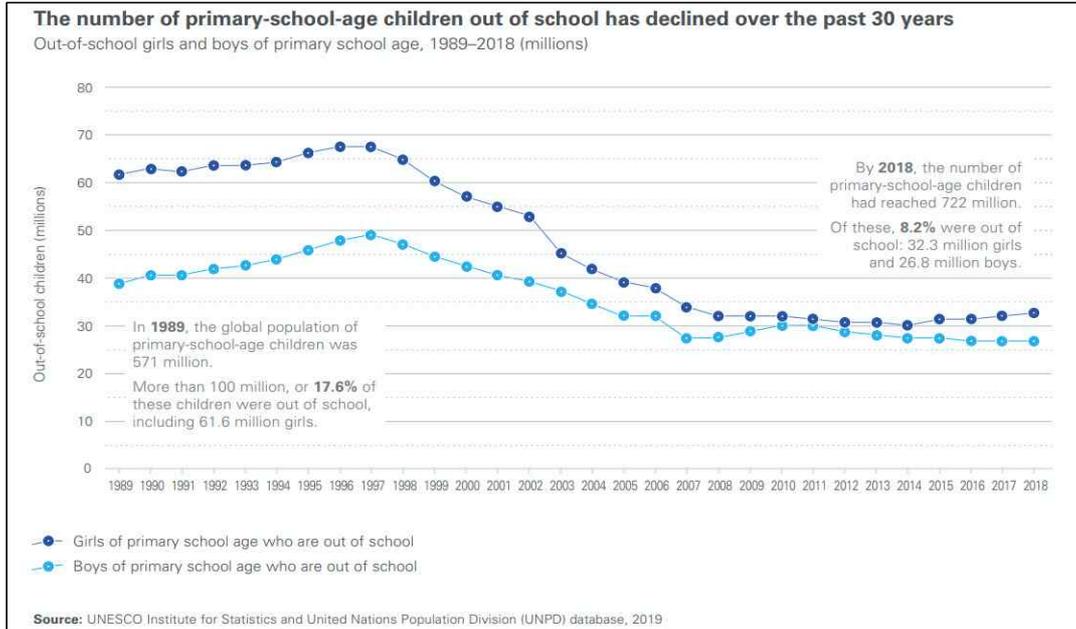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의 실행가능성을 분석해 봄에 있어서,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을 통해 다문화 역량 강화에 대한 기대, 예비교사에게 해외 학교현장에 대한 제한적인 일부 측면의 간접 경험, 이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지원의지 및 인식변화, 그리고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등은 온라인 국제교육실습 프로그램이 극복해야 될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교육실습 현장참여를 통한 생생한 경험의 토로가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을 통해 성취 가능할 것인지,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이 실현 가능할 것인지, 신중히, 그리고 냉철하게 판단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동시에, 온라인으로 국제교육실습을 운영한다면 UNICEF 등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돕고, 이를 통해 예비교사의 다문화 역량 강화와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 글로벌 리더로서의 개인적 성장, 언어능력의 향상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외국의 대학들과 협약을 통해 국제교육실습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의 경우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실습대상이 되는 학교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국제교육실습의 효과는 선행연구들과 위의 논의를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연구의 배경에 소개된 바와 같이, Covid-19와 유사한 바이러스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두기가 의무화되고 있으므로, 교육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교육실습의 대안으로 ‘UNICEF 등의 국제기구와의 협약을 통한 교육실습사업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는 비록 [그림 2]처럼 그 수가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림 2] 지난 30년간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숫자 변화 추이

*출처: UNICEF(2019).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아이들은 가정의 재정적인 상황은 물론 국가의 재정적인 상황이 나 인력의 상황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라이프 오브 더 칠드런(Life of the Children)이라는 단체는 중남미 지역에서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을 지원한다. 이들은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니카라과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로 교육 환경 및 학습 능력이 좋지 않아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여전히 읽고 쓰기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학교 수업 외에 추가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Life of the Children News, 2018, August 17).”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온라인을 통한 국제교육실습의 가능성 찾아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전의 국제교육실습의 대다수의 경우 두 국가 중 한 국가는 ‘영어권국가’였다. 하지만, 예비교사들의 다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해 비영어권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과 화상을 통해 만나고 영어라는 매개로 소통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그 의미와 효과가 기대되는 대안이다. 이에 UNICEF 등의 국제기구와 협약을 통해 한국의 예비교사들과 교육이 절실한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국제교육실습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을 통해 예비교사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교사로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다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영어로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온라인 국제교육실습 비용은 저렴하여 실습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들과 예비교사들 모두에게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셋째, 예비교사들은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을 통해 교육전문성을 연마하면서 인류애를 함양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기에 또 다른 형태의 다문화,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시민으로서 “국제협력, 환경, 인권, 평화 등에 대한 이해(Banks, 2009 cited in Kim, 2015)” 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은 매 학기 시행이 가능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한 단기 프로그램은 물론 중장기 프로그램으로의 구성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예비교사는 물론 현직교사들도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을 통해 재교육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대안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 보기 위하여 국제교육실습 참가 예비교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의 가능성을 탐색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의 가능성을 제안하여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방안의 제시는 현재 원격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는 한국의 교육상황에 부합하며 원격교육 발전에 일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본 연구가 실제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그에 수반되는 여러 제도적 장치와 장비의 준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명확하나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데에 그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 연구를 통해 온라인 국제교육실습 실현을 위한 제도 및 장비 등의 준비와 실현 가능한 해결책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국제교육실습의 효과로 제시된 다섯 가지의 항목들이 실제 효과로 드러나는지, 그 효과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References

- Ahmad, N. J., Ishak, N. A., Samsudin, M. A., Meylani, V., & Said, H. M. (2019). Pre-service science teachers in international teaching practicum: Reflection of the experience. *Jurnal Pendidikan IPA Indonesia*, 8(3), 308-316. doi:10.15294/jpii.v8i3.18907
- Azizah, N. (2016). International teaching practicum. *Proceeding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acher Training and Education FKIP UNS 2015*, 1(1), 706-709.
- Banks, J. A. (2009). *Educating Citizens in a Multicultural society*. New York, USA: Teachers College Press.
- Barkhuizen, G., & Feryok, A. (2006).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of a short-term international experience programme. *Asia-Pacific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 115-134. doi:10.1080/13598660500479904
- Blommaert, J. (2020, March 6). COVID19 and globalization. Academia.edu, Retrieved from https://www.academia.edu/42174919/COVID19_and_Globalization?email_work_card=view-paper
- Brindley, R., Quinn, S., & Morton, M. L. (2009). Consonance and dissonance in a study abroad program as a catalyst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of pre-service teacher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5(3), 525-532. doi:10.1016/j.tate.2008.09.012
- Canagarajah, A. S. (2003). A somewhat legitimate and very peripheral participation. In C. P. Casanave, & S. Vandrick (Eds.), *Writing for scholarly publication: Behind the scenes in language education* (pp. 197-210). Mahwah, USA: Erlbaum.
- Cole, D. J. (1984). "Multicultural education and global education: A possible merger". *Theory into Practice*, 23(2), 151-154. doi:10.1080/00405848409543106
- Creese, A., & Blackledge, A. (2011). Ideologies and interactions in multilingual education: What can an ecological approach tell us about bilingual pedagogy?. In C. Hélot, & M. Ó. Laoire (Eds.), *Language policy for the multilingual Classroom: Pedagogy of the Possible* (pp. 3-21). Bristol, Buffalo, Toronto, USA: Multilingual Matters.
- Cruikshank, K., & Westbrook, R. (2013). Local and global - conflicting perspectives? The place of overseas practicum i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1), 55-68. doi:10.1080/1359866x.2012.753989
- Cushner, K., & Brennan, S. (Eds.) (2007). *Intercultural student teaching, A bridge to global competence*. Lanham, USA: Rowman and Littlefield Education.
- Cushner, K., McClelland, A., & Safford, P. (2000). *Human diversity in education: An*

- integrative approach*. Boston, USA: McGraw Hill.
- Doppen, F. H., & An, J. (2014). Student teaching abroad: Enhancing global awareness. *International education*, 43(2), 59-74.
- Education Policy Network (2020, May 8). Special issue on overseas education trends 'education sector' s respond toward COVID pandemic of countries' . KEDI Education Policy Network, Retrieved from <http://edpolicy.kedi.re.kr/frt/webzine/selectOverseaWebzineList.do?strCurMenuId=36&nTbWebzineSeq=2041> ㉠ 국문: 교육정책네트워크(2020.5.8). 해외교육동향 특별호 '각국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대책'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frt/webzine/selectOverseaWebzineList.do?strCurMenuId=36&nTbWebzineSeq=2041> 에서 검색.
- Fitzsimmons, P., & McKenzie, B. (2006). Super or superfluous in the south pacific? Unearthing the benefits of an overseas teaching practicum.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5(2), 177-189. doi:10.1177/1475240906061861
- Foster, A. D., & Rosenzweig, M. R. (1995). Learning by doing and learning from others: Human capital and technical change in agricultur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3(6), 1176-1209. doi:10.1086/601447
- Freire, P. (1970).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USA: Continuum.
- Hart, V., Whatman, S., McLaughlin, J., & Sharma-Brymer, V. (2012). Pre-service teachers' pedagogical relationships and experiences of embedding indigenous Australian knowledge in teaching practicum. *A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42(5), 703-723. doi:10.1080/03057925.2012.706480
- Jeon, J. Y., & Mun, B. K. (2020, April 23). Making Korean remote education development plan... The first meeting of the policy advisory group. *ETNEWS*, Retrieved from https://www.etnews.com/20200423000108?mc=ns_003_00001 ㉠ 국문: 전지연, 문보경 (2020.4.23). 한국형 원격교육 발전 방안 만든다... 정책자문단 첫 회의.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0_0423000108?mc=ns_003_00001 에서 검색.
- Jeong, J. W. (2020, May 11). Why does a virus mutate and make it difficult to develop vaccine?. *The Korea Economic Daily*, Retrieved from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050866861> ㉠ 국문: 정종우(2020.5.11). 바이러스는 왜 변종이 발생해 치료제 개발을 어렵게 할까?.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050866861> 에서 검색.
- Kabilan, M. K. (2013). A phenomenological study of an international teaching practicum: Pre-service teachers' experience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38(2), 198-209. doi:10.1016/j.tate.2013.07.013

- Kim, J. H. (2015). Case study on overseas volunteer program for improving global citizenship of university students - based on H university-. *Journal of Korea Culture Industry*, 15(3), 65-75. ☞ 국문: 김지혜(2015).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해외봉사활동 사례 연구: H대학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5(3), 65-75.
- Kim, H. S., & Park, E. Y. (2011). Micro-teaching in cyber university English class. *Education Research*, 50, 103-122. doi:10.17253/swueri.2011.50..004 ☞ 국문: 김현숙, 박은영(2011). 온라인강좌에서 예비교사교육을 위한 영어수업시연의 구현. *교육연구*, 50, 103-122.
- Kim, Y. O. (2018). The effects of an international practicum on preteachers' teaching practicum meta-cognitive professional competence in elementary education. *Journal of Learning Strategy Intervention*, 9(2), 1-12. ☞ 국문: 김윤옥(2018). 초등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 초인지 전문성에 대한 국제교육실습이 미치는 효과. *학습전략중재연구*, 9(2), 1-12.
- Kim, Y. O. (2019). Experiences expressed on the international teaching practicum reports written by Korean pre-teachers. *Teaching Practicum Research*, 1(2), 29-42. ☞ 국문: 김윤옥(2019). 한국 예비초등교사들의 실습보고서에 나타난 국제교육실습 경험. *교육실습연구*, 1(2), 29-42. doi:10.35733/tpr.2019.1.2.29
- Kim, Y. O., Sol, Y. H., & Woo, S. D. (2011). A study on an international practicum for pre-teachers from 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 Studies*, 48(2), 15-29. ☞ 국문: 김윤옥, 설양환, 우상도(2011). 교육대학교 예비교사들의 국제교육실습에 대한 연구. *교육논총*, 48(2), 15-29.
- Kim, Y. O., & Yun, S. (2019).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 model of international teaching practicum program: The formation of procedural structure and detailed elements of the contents. *Teaching Practicum Research*, 1(1), 47-62. ☞ 국문: 김윤옥, 윤소영(2019). 국제교육실습프로그램 표준모형 개발을 위한 내용 요소 및 절차구안. *교육실습연구*, 1(1), 47-62. doi:10.35733/tpr.2019.1.1.47
- Kim, Y. O., Yun, S., Sol, Y. H., & Seo, C. R. (2019). The effectiveness of enhancing multi-cultural competence thru the orientation program in developing an international teaching practicum for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1), 183-215. doi:10.22251/jlcci.2019.19.11.183 ☞ 국문: 김윤옥, 윤소영, 설양환, 서찬란(2019). 국제교육실습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다문화역량 향상을 위한 사전교육의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1), 183-215.
- Kim, Y. O., Yun, S., & Sol, Y. H. (2021, June, in progress). The long-term effects of an international teaching practicum on pre-service teachers' personal and professional

- development.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in progress.
- Kwak, C. S. (2014). What is the alternative of ‘college of Education problem?’ . *Creation & Criticism*, 32(4), 81-94. ☞ 국문: 곽차섭(2014). ‘사범대 문제’의 대안은 무엇인가. **창작과 비평**, 32(4), 81-94.
- Kwon, S. C. (2014). Enhancing global teacher education and international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20(4), 504-520. ☞ 국문: 권상철(2014). 사범대학 글로벌 교육 확대와 교육 국제개발협력 효과 증대 방안 일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4), 504-520.
- Kwon, S. & Kim, S. B. (2015). The global teachers’ university program at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its future direc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17(1), 43-64. ☞ 국문: 권상철, 김성백(2015). 제주대학교 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GTU)지원사업과 발전 방안. **교육과학연구**, 17(1), 43-64.
- Lee, H. M., Jeong, Y. J., & Sol, Y. H. (2018). A comparative case study on international student teaching program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eacher Education Research*, 57(3), 297-324. doi:10.15812/ter.57.3.201809.297 ☞ 국문: 이현명, 정용재, 설양환(2018). 한국과 미국의 국제교육실습 사례 비교 연구. **교사교육연구**, 57(3), 297-324.
- Lee, J. Y. (2020, April 12). Allow ‘online teaching practicum’ for the first ‘online start of school’ in history. Yonhap News,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0122200004?input=1195m> ☞ 국문: 이재영(2020.4.12). 사상 첫 ‘온라인 개학’에 ‘온라인 교생실습’ 허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0122200004?input=1195m> 에서 검색.
- Lee, W. H. (2016). Future task of school curriculum for competency development and multi-culture community.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7(2), 1-19. ☞ 국문: 이원희(2016). 미래사회와 학교 교육과정의 과제: 역량 개발과 다문화 공동체 형성. **교육학논총**, 37(2), 1-19.
- Life of the Children News (2018, August 17). An after-school has opened in Nicaragua. Life of Children, Retrieved from http://lifeofthechildren.org/bbs/board.php?bo_table=s5_2&wr_id=154&sca=%EB%9D%BC%EC%B9%A0%EB%89%B4%EC%8A%A4&page=11 ☞ 국문: 라칠뉴스(2018.8.17). 니카라과에 방과후학교가 문을 열었어요. http://lifeofthechildren.org/bbs/board.php?bo_table=s5_2&wr_id=154&sca=%EB%9D%BC%EC%B9%A0%EB%89%B4%EC%8A%A4&page=11 에서 검색.
- Mahon, J., & Cushner, K. (2002). The overseas student teaching experience: creating optional culture learning. *Multicultural Perspectives*, 4(3), 3-6. doi:10.1207/s15327892mcp0403_2
- Mahon, J., & Espinetti, G. L. (2007).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n international

- student-teaching program. In K. Cushner, & S. Brennan. (Eds.), *Intercultural student teaching: A bridge to global competence* (pp. 13-33). Lanham, USA: Rowman and Littlefield Education.
- Maynes, N., Allison, J., & Julien-Schultz, L. (2012). International practica experiences as events of influence in a teacher candidates' development. *McGill Journal of Education*, 47(1), 69-91. doi:10.7202/1011667ar
- Myers Jr, E. (1997). Some benefits of an education abroad programme for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Education*, 117(4), 579-583.
- Na, S. I., Lee, M. H., Park, M. H., Han, H. J., Kim, I. G., Lim, H. W., & Hwang, Y. D. (2012). *Student Teacher Practice*. Paju, Korea: Gyoyookgwahaksa. ☞ 국문: 나승일, 이명훈, 박미화, 한홍직, 김인곤, 임호원, 황영덕(2012).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실습 가이드**. 파주: 교육과학사.
- Newsis (2020, April 20). [New World After COVID-19] “New Normal” as crisis and opportunity, how to respond. Newsis, Retrieved fr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9_0000998415&clD=10401&pID=10400 ☞ 국문: 뉴시스(2020.4.20). [코로나 이후 신세계] 위기와 기회의 ‘뉴노멀’,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9_0000998415&clD=10401&pID=10400 에서 검색.
- Ozek, Y. (2009). Overseas teaching experience: student teachers' perspectives of teaching practicum,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1), 2541-2545. doi:10.1016/j.sbspro.2009.01.448
- Pence, H. M., & Macgillivray, I. K. (2008). The impact of an international field experience on pre-service teacher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4(1), 14-25. doi:10.1016/j.tate.2007.01.003
- Sahin, M. (2008). Cross-cultural experience in teacher education.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4(7), 1777-1790. doi:10.1016/j.tate.2008.02.006
- Slapac, A., & Navarro, V. (2013). Fledgling steps to global self-awareness for preservice teachers abroad. *Journal of Meaning-Centered Education*, 2013(1). 1-20.
- Sol, Y. H. (2011). An analysis of perception of American teachers and students of Korean pre-service teachers in overseas student teaching.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Studies*, 18(2), 23-52. ☞ 국문: 설양환(2011). 미국 교육실습학교 실습지도 교사와 초중고 학생의 한국 교육실습생에 대한 인식. **초등교육학연구**, 18(2), 23-52.
- Sol, Y. H. (2014). Investigating meta-cognitive professional competence on international practicum. *Journal of Learning Strategy Intervention*, 5(2), 1-20. ☞ 국문: 설양환(2014). 해외교육실습 초인지적 전문성에 대한 탐색. **학습전략중재연구**, 5(2), 1-20.

- Sol, Y. H. (2015). What do the elementary pre-teachers learn from their practicum in the USA?. *Journal of Learning Strategy Intervention*, 8(1), 43-64. ☞ 국문: 설양환(2015). 초등예비교사들은 미국교육실습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학습전략중재연구*, 6(1), 43-64.
- Son, E. Y., Park, S. J., & Lee, J. W. (2016). A case study and outcome analysis of student-teacher practicum system modification in college of education.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7(1), 1-25. ☞ 국문: 손은령, 박수정, 이주욱(2016). 사범대학의 교육실습체제 개선 사례 및 성과 분석. *교육연구논총*, 37(1), 1-25. doi:10.18612/cnujes.2016.37.1.1
- Sung, Y. K. (2010). Analysis on perspectives and concepts of global education curriculum document: With reference to national curriculum in the UK.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37, 23-42. ☞ 국문: 성열관(2010).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국제교육의 관점과 개념 분석: 영국 국가교육과정 지침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37, 23-42.
- Thomas, P. G. (2006). Pre-service practicum teaching in central Asia: A positive experience for both worlds. *Journal of Social Studies Research*, 30(1), 21-25.
- Unicef Report (2019). *For every child, every righ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t a crossroads*. New York, USA: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Retrieved from <https://www.unicef.org/media/62371/file/Convention-rights-child-at-cross-roads-2019.pdf>
- Walters, L. M., Garii, B., & Walters, T. (2009). Learning globally, teaching locally incorporating international exchange and intercultural learning into pre-service teacher training. *Intercultural Education*, 20(4), 151-158. doi:10.1080/14675980903371050
- Wenger, E. (1998).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Cambridge,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lard-Holt, C. (2001). The impact of a short-term international experience for preservice teacher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7(4), 505-517. doi:10.1016/s0742-051x(01)009-9
- Yun, S. (2016). *A linguistic ethnographic study of young American novice teachers in Korea: a policy into practi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irmingham, Birmingham, England.